

# 남자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피임 자기효능감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박정숙\*, 김보미\*\*, 권영은\*\*\*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가톨릭상지대학 간호학과\*\*, 선린대학교 간호학부\*\*\*

## Influence of Psycho-Social Maturity and Self-efficacy for Contraceptive on Sexual Assertiveness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ung-Suk Park\*, Bo-Mi Kim\*\*, Young-Eun Gwan\*\*\*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Dept. of Nursing, Catholic Sangji College\*\*  
Dept. of Nursing, Sunl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피임 자기효능감,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를 확인하고 남자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A시 소재의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 200명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피임 자기효능감, 성적 자기주장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피임 자기효능감과 심리사회적 성숙도였고, 전체 설명력은 33%이었다. 따라서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요인을 바탕으로 남자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성적 자기주장, 심리사회적 성숙도, 피임 자기효능감, 남자 대학생, 융복합적 영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lationships among psycho-social maturity, self-efficacy for contraceptive, and sexual assertiveness to see which factors influence sexual assertiveness in male university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00 male university students in A city from July 1 to 30, 2015.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Psycho-Social Maturity, Self-efficacy for Contraceptive, and Sexual Assertiveness. Meaningful variables that influenced Sexual Assertiveness were Self-efficacy for Contraceptive and Psycho-Social Maturity, and the total explanation power was 33%. In conclusion, development of sex education program to increase Sexual Assertiveness of male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 influencing factors is needed.

**Key Words** : Sexual Assertiveness, Psycho-Social Maturity, Self-efficacy for Contraceptive, Male University Students, Convergent Influence

Received 19 May 2016, Revised 9 August 2016  
Accepted 20 September 2016, Published 28 Sept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Bo-Mi Kim(Catholic Sangji College)  
Email: point99930@naver.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2014년 전국대학생 성의식 조사에 따르면 1,254명 중 82.9%가 자신의 삶에서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인 62.1% 학생들이 성관계의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1]. 이처럼 대학생들의 개방적인 성문화는 성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와 성지식을 여과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왜곡된 성의식을 형성하여 성적 욕구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거나 성을 유희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어 무분별한 성생활을 유발할 수 있다[2,3]. 따라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성적 권리를 이해하고, 원치 않은 성적 상황과 성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이를 시행할 자율적인 성적자기 주장을 가져야 한다[4].

성적 자기주장은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 접촉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성적 자기주장이 높으면 이성교제 중 원치 않는 성행위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5], 자신 스스로 성적인 존재로 주체적으로 성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성적 자기주장이 낮으면 원치 않는 성적인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진다[6]. 따라서 자유로이 성 문화를 받아들이는 대학생 시기에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피임 자기효능감은 피임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개인 스스로의 확신의 정도를 의미한다[7]. 이러한 피임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피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으며[8],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원치 않은 성교 상황에서 성교를 거절하고[9], 피임실천력과 피임의도가 높다[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치 않은 성교 상황에서 거절 할 수 있는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피임 자기효능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심리적 성숙이란 자기상을 형성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이며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 흥미, 욕구, 의미 있는 중요한 동일시, 성역할 및 방어기제 등을 독특하고 고유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정도이다[10]. 사회적 성숙이란 타인에 대한 의식이 '나'의 지각 속에 존재하여 행동이 타인에 대한 의식을 전제로 고려되고 통제 될 수 있어 나에 대한 의식과 타인에 대한 의식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10]. 심리학적 발달 단계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들은 청년기로 분류되며 정체감 확립과 사회성 발달[11], 환경변화에 익숙해지는 시기로[12,13] 심리사회적으로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면 타인에 대한 배려 없는 행동으로 성역할 및 성범죄에 노출되고, 성 행동문제시 미숙한 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성 태도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성태도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심리사회적 성숙이 높을수록 순결과 성 허용성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11]는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에서 심리사회적 성숙도가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대학생과 청소년의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 자기주장이 대부분이었고[5,14,15,16,17], 남녀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을 본 연구[22]가 있었으나, 성별 특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남녀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비교한 후속 연구에서[3] 남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 종교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별되었으나, 반복연구를 통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색해 볼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Seth M[18]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성적 자기주장을 증가시키는 것이 안전한 성 행위를 통해 건강한 성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시사였고, 남성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함을 제언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남성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남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성 개방화 사회에서 의미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융복합적 시대의 남자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심리사회적 성숙도, 피임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며 남자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융복합적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남자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을 높이기 위한 중재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피임 자기효능감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보는 연구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제 특성을 파악하고, 제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피임 자기효능감, 성적 자기주장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성숙도 정도와 피임 자기효능감, 성적 자기주장 정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A시 소재의 A대학, C 대학의 만 19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 남자 대학생으로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220명이다. 본 연구의 적절한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G\*Power3.1 progra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는 중간크기인 0.25, 검정력은 0.8로 설정하여[19] 계산하였을 때 200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220부를 배부 하였고, 질문한 설문지에 대한 답변 중 부적절한 응답이나 미 회수된 대상자를 제외한 200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 2.2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 9문항, 성관련 사항 9문항, 심리사회적 성숙도 42문항, 피임 자기효능감 11문항, 성적 자기주장 12문항으로 총 8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2.1 심리사회적 성숙도

심리사회적 성숙도는 Noh[20]가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실현과 일에 대한 헌신(7문항), 긍정성과 평정심(6문항), 자율성(6문항), 사회적 책임감(6문항), 심미적 감수성(6문항), 존중과 배려(5문항), 가족애와 관계 지속성(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성숙과 각 하위 차원이 잘 발달된 것을 의

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Noh[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87$ 이었다.

#### 2.2.2 피임 자기효능감

피임 자기효능감은 Kang[7]이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콘돔사용 자기효능감 척도를 연구자가 남자 대학생의 피임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콘돔사용에 관련된 문항은 피임이란 단어로 수정하였으며, 수동적인 표현은 피임도구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남성들에게 적합하게 능동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총 11문항 5점 Likert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ang[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0$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80$ 이었다.

#### 2.2.3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은 Ha, Jun, Lee, Cho[21]가 개발한 남자 고등학생의 성 발달 평가척도의 하위요인인 성적 자기주장요인을 척도를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원치 않은 성 접촉에 대한 거절(10문항), 이성 관계 자율성(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Ha, Jun, Lee, Cho[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90$ 이었다.

### 2.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수집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였으며 연구대상자는 A시 소재의 대학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가 선정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이에 수락하는 자에게 서면 동의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2.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제 특성에 따른 성

적 자기주장은 t-test 또는 ANOVA 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피임 자기효능감, 성적 자기주장은 평균 평점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피임 자기효능감, 성적 자기주장은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시작 전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2015년도 K대학 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No:1040549-150623-SB-00-36-01)을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연구대상자의 자의에 의한 참여로 서면 동의 후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조사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 후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통계처리 시 개인 식별정보를 암호화 하였다.

## 3. 결과

### 3.1 대상자의 제 특성과 제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 정도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23-24세가 37.5%(75명)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무교가 70.0% (14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4학년이 31.0%(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력은 군필자가 57.5%(115명)로 가장 많았다. 전공은 자연계열이 37.0%(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형태는 자취가 37.0%(74명)로 가장 많았고, 용돈의 출처는 부모님이 44.0%(88명)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의 결혼 상태는 혼인상태유지가 83.5%(167명)로 가장 많았다. 이성 친구 유무는 없음이 54.5%(109명)로 있음 45.5%(91명)보다 조금 많았고, 성교경험은 있음이 77.0%(155)로 없음 23.0%(45명)보다 많았다. 성 관계상대 중 여자 친구가 84.5%(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첫 성관계시 피임은 했다 가 65.6%(102명)으로 안했다 34.4%(53명)보다 많았고,

했다면 피임방법 중 콘돔사용이 75.5%(77명)로 가장 많았고,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피임도구가 준비되지 않아서가 47.2%(25명)로 가장 많았다. 임신경험은 없다가 96.1%(149명), 있음 3.9%(6명)보다 많았고, 성병은 없음이 99.5%(199명), 있음 0.5%(1명)보다 많았다. 현재 성 파트너는 없음이 77.5%(155명)있음 22.5%(45명)보다 많았고, 피임방법결정은 본인이 75.0%(150명)이 파트너 25.0%(50명)보다 많았다. 1년 이내 또는 미래의 피임 방법은 콘돔이 78.5%(157명)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의 정도는 첫 성교 시의 피임여부( $t=-2.73, p=.007$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 3.2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피임 자기효능감, 성적 자기주장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성숙도 정도는 평균평점이  $3.39 \pm 0.35$ (척도범위: 1~5)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자기실현과 일에 대한 헌신의 평균평점은  $3.64 \pm 0.60$ , 긍정성과 평정심의 평균평점은  $2.43 \pm 0.65$ , 자율성의 평균평점은  $2.94 \pm 0.35$ , 사회적 책임감의 평균평점은  $2.94 \pm 0.57$ , 심미적 감수성의 평균평점은  $3.30 \pm 0.62$ , 존중과 배려의 평균평점은  $2.85 \pm 0.59$ , 가족애와 관계 지속성의 평균평점은  $3.92 \pm 0.39$ 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피임 자기효능감 정도는 평균평점이  $3.56 \pm 0.57$ (척도범위: 1~5)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 정도는 평균평점  $3.99 \pm 0.62$ (척도범위: 1~5)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Table 2>.

### 3.3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피임 자기효능감, 성적 자기주장과의 관계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피임 자기효능감 및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피임 자기효능감( $r=.46, p<.001$ ),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성적 자기주장( $r=.38, p<.001$ ), 피임 자기효능감과 성적 자기주장( $r=.57, p<.001$ )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 3.4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성적 자기주장을 종속변수로 하였

<Table 1> Degree of Sexual Assertive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 (n=2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	Sexual Assertiveness		
				M ± SD	t or F	p
Age(yr)	19-20	43	21.5	48.58±6.40	0.79	.375
	21-22	29	14.5	47.00±7.92		
	23-24	75	37.5	49.65±7.01		
	25-26	47	23.5	44.40±7.56		
	≥ 27	6	3.0	55.50±3.72		
Religion	None	140	70.0	47.50±7.62	1.45	.230
	Christian	20	10.0	48.50±7.04		
	Catholic	11	5.5	50.10±6.03		
	Buddhism	26	13.0	48.30±7.34		
	Other	3	1.5	53.00±7.81		
Grade	1	48	24.0	47.75±6.96	3.29	.710
	2	50	25.0	49.24±7.57		
	3	39	19.5	51.10±6.85		
	4	62	31.0	45.00±0.91		
	Other	1	0.5	50.00		
Military status	Fulfilled	115	57.5	48.33±7.95	0.76	.382
	Unfilled	78	39.0	47.61±6.77		
	exempted	7	3.5	46.28±6.04		
Major	Humanities · societv	32	16.0	46.90±7.47	0.43	.304
	Theology	74	37.0	48.30±7.90		
	Arts	50	25.0	47.00±7.37		
	Health science	44	22.0	49.20±6.65		
Residence	With family	72	36.0	47.61±7.60	0.18	.665
	Live alone	74	37.0	48.20±7.62		
	Dormitory	53	26.5	48.10±7.10		
	Live with others	1	0.5	48.00		
Financial sources	Part- time work	38	19.0	46.86±8.29	6.22	.335
	Parents	88	44.0	47.10±7.42		
	Part- time work and Parents	74	37.0	49.30±6.74		
Perceived sexual attitude of parents	Open	62	31.0	48.00±7.29	0.97	.324
	Average	115	57.5	47.30±7.65		
	closed	23	11.5	51.00±6.12		
Birth other	Eldest	78	39.0	46.88±7.15	3.62	.058
	Middle	20	10.0	46.80±7.75		
	Youngest	89	44.5	49.00±7.52		
	Only child	13	6.5	48.84±7.75		
Marital condition	Marriage	167	83.5	48.10±7.50	0.00	.988
	Divorced	21	10.5	46.90±7.21		
	Separation	5	2.5	41.60±6.02		
	Death of father	6	3.0	52.80±4.57		
	Death of mother	1	0.5	48.00		
Girl friend	None	109	54.5	47.60±7.56	-0.75	.927
	Yes	91	45.5	48.40±7.30		
Copulatory experience	None	45	23.0	49.71±6.39	1.78	.076
	Yes	155	77.0	47.47±7.66		
Who (n=155)	Girl friend	131	84.5	48.26±7.53	3.28	.072
	Friend	16	10.3	43.81±6.86		
	A stranger	5	3.2	42.80±9.67		
	Other	3	1.9	40.33±3.05		
First contraception (n=155)	None	53	34.4	45.18±7.81	-2.71	.007
	Yes	102	65.6	48.65±7.38		
First contraception method (n=102)	Condom	77	75.5	49.11±7.25	.141	.708
	The pill	9	8.8	44.77±9.43		
	External ejaculation	12	11.8	48.08±6.98		
	Rhythm method	3	2.9	50.33±4.04		
	Other	1	1.0	51.00		
Not a contraceptive (n=53)	Mood	13	24.5	42.30±8.22	0.31	.575
	Not prepare	25	47.2	46.56±7.84		
	Not consult with partner	8	15.1	46.25±7.10		
	woman obligations	1	1.9	37.00		
Pregnancy history (n=155)	Other	6	11.3	45.60±7.65	0.37	.707
	None	149	96.1	47.54±7.68		
Venereal Disease	None	199	99.5	48.00±7.43	10.70	.284
	Yes	1	0.5	40.00		
Partner of sex	None	155	77.5	48.16±7.19	0.63	.524
	Yes	45	22.5	47.30±8.29		
Choice of Contraception	Partner	50	25.0	48.60±7.61	0.70	.706
	Me	150	75.0	47.70±7.39		
Contraception method(1 year or Future)	Condom	157	78.5	48.50±7.44	2.87	.092
	The pill	8	4.0	42.00±8.60		
	External ejaculation	24	12.0	46.90±6.34		
	Rhythm method	7	3.5	47.20±5.46		
	Other	4	2.0	44.20±10.6		

<Table 2> Degree of Psycho-social Maturity and Self-efficacy for contraceptive, Sexual Assertiveness (n=200)

Categories	Items	M ± SD	Min~Max	Ranges
Psycho-social Maturity	42	3.39±0.35	2.45~4.48	1~5
Self actualization & Work commitment	7	3.64±0.60	2.19~5.00	
Positive sens and calmness	6	2.43±0.65	1.00~4.50	
Autonomy	6	2.94±0.35	2.00~4.17	
Social responsibility	6	2.94±0.57	1.33~4.67	
Aesthetic sensitivity	6	3.30±0.62	1.83~4.83	
Respect and consider	5	2.85±0.59	1.40~4.20	
Family love and long-lasting relationship	6	3.92±0.39	1.17~5.00	
Self-efficacy for contraceptive	11	3.56±0.57	1.91~5.00	1~5
Sexual Assertiveness	12	3.99±0.62	2.58~5.00	1~5

으며, 성적 자기주장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던 심리 사회적 성숙도, 피임 자기효능감, 그리고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 정도에서 사후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첫 성교시의 피임의 여부를 가변수 (dummy variable) 처리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623로 오차의 자기 상관이 없었으며,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789으로 0.1이상을 보였고, 분산팽창인자(VIF)가 모두 1.297로 10보다 작아 독립변수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 자기주장 모형 검증결과는  $F=50.410(p<.001)$ 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of sycho-social Maturity and Self-efficacy for contraceptive, Sexual Assertiveness (n=200)

Variables	B	$\beta$	t	p
Self-efficacy for ntraceptive	19.247	.566	9.19	<.001
Psycho-social Maturity	.085	.154	2.31	.019

$R^2=.39$ ,  $Adj.R^2=.33$ ,  $F=50.410$ ,  $p<.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n=200)

Variables	Psycho-social Maturity	Self-efficacy for contraceptive	Sexual Assertiveness
	r(p)	r(p)	r(p)
Psycho-social Maturity	1	.46 (<.001)	.38 (<.001)
Self-efficacy for contraceptive		1	.57 (<.001)
Sexual Assertiveness			1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피임 자기효능감이 31%로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심리 사회적 성숙도를 추가하니 33%로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Table 4>.

####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피임 자기효능감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남자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남자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도의 평균평점은 각 하위 영역별로 자기실현과 일에 대한 헌신은 3.64±0.60(척도범위: 1~5), 긍정성과 평정심은 2.43± 0.65, 자율성은 2.94±0.35, 사회적 책임감은 2.94± 0.57, 심미적 감수성은 3.30±0.62, 존중과 배려는 2.85 ±0.59, 가족애와 관계 지속성은 3.92±0.39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해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도를 성별에 따라 비교한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의 자기실현과 일에 대한 헌신은 3.50±0.62, 긍정성과 평정심은 3.78±0.81, 자율성은 3.38±0.64, 사회적 책임감은 2.84±0.58, 심미적 감수성은 3.30±0.68, 존중과 배려는 3.42±0.72, 가족애와 관계 지속성은 3.96±0.57로 나타나[11] 본 연구와 자기실현 및 일에 대한 헌신, 사회적 책임감, 심리적 감수성, 가족애와 관계 지속성은 유사하였으며 긍정심과 평정심, 자율성, 존중과 배려는 본 연구 보다 높게 나타났다. Wee[11]의 연구에서 계열 별로 비교한 결과, 긍정심과 평정심, 자율성, 존중과 배려 문항은 보건 계열의 학생 들이 타 계열의 학생보다 높게 측정되었다고 나타내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보

건 계열의 비율이 전체 22.0%였지만, Wee[11]의 연구에서 대상자는 보건계열의 대상자가 50.0% 비율로 대상자의 계열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Wee[11]의 연구에서 보건계열의 학생과 비 보건계열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던, 긍정심과 평정심, 자율성, 존중과 배려 문항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계열별 심리사회적 성숙도가 차이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반복적인 연구를 통하여 심리사회적 성숙도에 관한 연구와,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시기는 성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고, 취업 준비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성립된 심리적성숙도는 삶의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남자대학생의 피임 자기효능감의 평균평점은  $3.56 \pm 0.57$ (척도범위: 1~5)로, 피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생의 피임 자기효능감을 본 Kim[22]의 연구에서는 실험군  $41.57 \pm 6.19$  대조군  $42.57 \pm 5.44$ 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는 3월부터 5말 사이 대학 신입생의 25%가 첫 성경험을 하고, 대학교 1학년의 성 경험이 20%이상으로 높아지는 점을 미루어 볼 때[23] 대학생의 시기는 고등학생에 비해 성적 상황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많아 본 연구에서 피임 자기효능감이 고등학생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미혼 남녀의 피임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본 Hwang[23] 연구에서는 중 여성은 43.79, 남성은 41.81(도구범위: 12~60)로 남성과 여성 모두 본 연구의 결과보다 높게 측정되었고, 이는 남자 대학생보다는 미혼 남성과 여성이 신체 발달 시기적으로 성가치관이 이미 확립되고, 더욱 주체적으로 성 행위를 행하는 시기이기에 본 연구와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Hwang[23]에서 사용한 피임 자기효능감 도구는 Kang[7]이 개발한 피임 자기효능감에 음주 후 피임여부에 대한 1문항을 추가하였기에, 음주 후 피임여부에 관한 문항이 없는 본 연구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피임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음주환경과 같은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피임 자기효능감 척도가 개발된다면, 더욱 의미 있게 피임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임 자기효능감은 피임실천행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어[23] 남자 대학생의 피임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거나, 관련된 여러 요인을 분석하여 피임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남자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의 평균평점은  $3.99 \pm 0.62$ (척도범위: 1~5)로 나타났다. 본 도구를 개발해 고등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을 본 Ha, Jun, Lee, Cho[21]의 연구 중 음란물 경험 상 집단  $43.87 \pm 8.45$ , 하 집단은  $48.05 \pm 6.46$ 로 본 연구와 비교해 보면, 상집단보다 본 연구결과의 평균평점이 높게 나타났고, 하 집단과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도구를 사용했지만 남녀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비교해서 본 Kim[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  $41.24 \pm 9.91$ , 여학생은  $52.12 \pm 5.66$ (도구범위: 12~60)으로 나타나 여성은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Kim[3]이 사용한 성적 자기주장 도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여성을 위주로 생각하고 체크하도록 만들어진 문항으로 본 연구가 남자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이 높게 측정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 도구를 개발해서 더욱 의미 있는 성적 자기주장 관련요인들을 확인하여 남학생의 바람직한 성적 자기주장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성적 자기주장은 첫 성교 시의 피임여부( $t = -2.73, p = .007$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첫 성교 시의 피임여부 중 피임을 한 군이 피임을 하지 않은 군보다 성적 자기주장이 높게 나와 성적 자기주장은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와 Kim[3]의 연구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Kim[3]의 연구에서는 학년, 전공, 전공계열, 용돈출처, 이성교제 경험 등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각 지역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자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제 특성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피임 자기효능감과 관계는( $r = .46, p < .001$ ),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는( $r = .38, p < .001$ ) 나타났으며, 피임 자기효능감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 $r = .57, p < .001$ )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피임 자기효능감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를 본 연구가 없어서 직접적

인 비교하기 어려우나, 남자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피임 자기효능감, 성적 자기주장과 관계가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고 다른 관련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남자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더 깊은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은 피임 자기효능감과 심리사회적 성숙도로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던 첫 성교시의 피임여부는 집단 간 차이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회귀분석에서는 첫 성교시의 피임여부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성적 자기주장과 상관은 있으나, 예측변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남자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에 대한 탐색과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피임 자기효능감은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31%로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심리사회적 성숙도를 추가하니 33%로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하지만 성적 자기주장과 피임 자기효능감,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선형연구가 부족하여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성적 자기주장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남자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피임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성적 자기주장과 관계를 파악하고,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피임 자기효능감과 심리사회적 성숙도로 전체 33%로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피임 자기효능감과 심리사회적 성숙도를 확인함으로써, 남자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모든 지역의 남자 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확대 및 비교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남자대학생을 성적 자기주장과 피임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 및 평가를 통해 검증력 확인 후 남자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을 향상 시키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며,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E. M. Kim, S. J. Yoo, M. R. Song, "Correlation between history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sexual attitudes and intercourse experi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s Nursing*, Vol.20, No.1, pp.18-26, 2013.
- [2] K. I. Lee, "Structural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for the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 sung University, 2015.
- [3] B. M. Kim, "Relationships among Parent-child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for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Woman Health Nursing*, Vol.21, No.1, pp.11-22, 2015.
- [4] East, P, Adams, J, "Sexual Assertiveness and Adolescents's Sexual Rights",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Vol.34, No.4, pp.212-213, 2002.
- [5] M. H. Choi,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among wome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5.
- [6] S. M. Park, W. Y. Song. "The effect of rape myth and tolerance towards violence on dating to the sexual assertiveness in college woman",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17, No.2, pp.265-280, 2012.
- [7] H. S. Kang, S. B. Chang,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 Condom Attitud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4, No.5, pp.751-759, 2004.
- [8] M. H. Heo, H. Y. Ahn, E. A. Guk. K. M. Kim, J. Y. Park, J. Lee.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Contraception and Attitude of Contraception among University



-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7, No.3, pp.267-275, 2007.
- [9] Sionean, C., Diclemente, R. J., Wingood, G. M., Crosby, R., Cobb, B. K. Psychosocial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refusing unwanted sex among African - American adolescent females. *J Adolesc Health*, Vol.30, No.1, pp.55-63, 2002.
- [10] E. J. Heo.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Social Maturity Variables and Sexual Attitude, Knowledge in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2003.
- [11] J. H. Wee.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cial Maturity Variables and Sexual Attitude, the awareness on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s" master's thesis, Su Won University, 2014.
- [12] K. A. Chung, J. H. Cho, "Differences between Major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the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t On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143-155, 2015.
- [13] S. Y. Park, K. Y. Park, "Correlation Study of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and Self-esteem For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55-261, 2015.
- [14] S. B. Chang, M. S. Yoo, S, K, Lee, "Self-Assertiveness and Sexual Experiences of Teenage Girls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an Health Nursing*, Vol.7, No.3, pp.305-316, 2001.
- [15] J. Y. Lee, E. S. Le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 Sexual Self-Assertiveness Scale for Female ",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7, No.1, pp.47-62, 2006.
- [16] H. J. Kim, "Female Adolescent's Sexual Assertiveness Type: Q Methodology" *Korean Journal of Woman Health Nursing*, Vol.21, No.4, pp.272-283, 2015.
- [17] N. H. Lee, J. S. Jang, H. S. Song, "Influencing factors on female university student's sexual experience and sexual assertivenes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3, pp.414-422, 2016.
- [18] Seth M. Noar. Patricia J. Morokoff. Colleen A, "Sexual Assertiveness in Heterosexually Active Men: A Test of Three Samples", *Journal of AIDS Education and Prevention* Vol.14, No.4, pp.330-342, 2002.
- [19]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Lang A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1, No.4, pp.1149-1160, 2009.
- [20] K. Y. No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sychosocial maturity inventory for Korean adults",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2003.
- [21] E. H. Ha, J. M. Jun, S. H. Lee, Y. J. Cho,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exual Development Assessment Scale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14, No.6, pp.257-279, 2007.
- [22] Y. H. Kim, S. T. Moon, H. S. Kang, "Factors Influencing on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an Health Nursing*, Vol.19, No.3, pp.166-175, 2013.
- [23] Y. J. Kim "The effects of contraceptive education program on contraceptive knowledge, attitude and self - efficacy among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Busan University, 2015.
- [24] S. W. Hwang, j. W. Jung, "Contraception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in Unmarried Female and Male", *Korean Journal of Woman Health Nursing*, Vol.17, No.1, pp.77-87, 2011.
- [25] H. Y. Kang,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and variables forecasting sexual intercourse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2007.

박 정 숙(Park, Jung Suk)



- 2005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10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모성, 노인
- E-Mail : cooler79@ kosin.ac.kr

김 보 미(Kim, Bo Mi)



- 2014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15년 3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 과정
- 2015년 3월 ~ 현재 : 가톨릭상지대학 간호학과 겸임 교수
- 관심분야 : 모성, 조산학
- E-Mail : point99930@naver.com

권 영 은(Gwan, Young Eun)



- 2014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14년 3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박사 과정
- 2015년 3월 ~ 현재 : 선린대학교 간호학부 전임교수
- 관심분야 : 모성, 조산학
- E-Mail : kyejoy@sunlin.ac.kr